

주가 바닥친 삼전·하이닉스... 증권업계는 상승 전망

유진증권 "장기투자자 충분히 진입 가능한 주가 수준" 대신증권 "걱정보다 나쁘지 않아... 반등시도 나설 것"

최근 외국인의 폭풍 매도로 삼성전자 [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 주가는 연중 최저치를 찍으며 부진에 빠졌다. 반도체 업황 불안에 따른 급락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국내 증권가에서는 반도체 주가가 나름 긍정적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D램 조정 사이클이 오더라도 그 강도는 예상보다 높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또한 업황·실적 우려가 지난주에 선반영 돼 향후 상승추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17일 유진투자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D램 조정 사이클이 온다 하더라도 마일드한 다운턴(하강국면)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지수 대비 상대 주가는 상승 폭에 비해 상당한 조정이 이뤄져 삼성전자 7만원대 초중반, SK하이닉스 9만원대 후반 수준이면 주가 바닥권에 상당히 근접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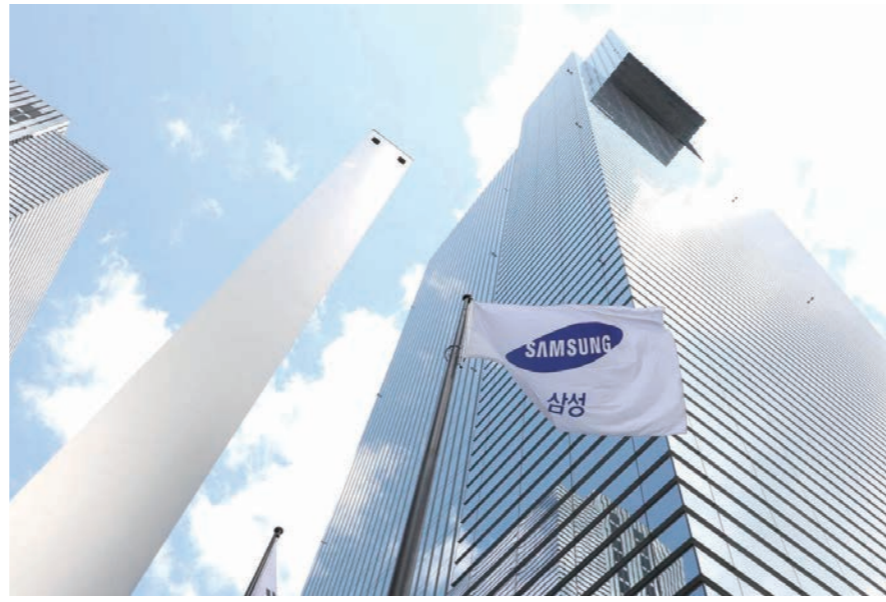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3일 종가 기준 삼성전자는 일주일 전과 비교해 8.7% 빠지며 연중 최저치인 7만4400원에 마감했다. 지난해 12월 23일(7만3900원) 이후 약 9개월 만에 7만5000원 아래로 떨어졌다. 지난주 외국인의 순매도 규모는 무려 5조6068

억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SK하이닉스도 14.0% 하락하며 10만1500원으로 장을 마쳤다. 장중 한때 9만8900원까지 떨어지며 네이버에 시가총액 2위 자리를 내주기도 했다. 한 주간 외국인의 순매도 규모는 2조206억원에 달했다.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대만 정보기술(IT) 매출 분석 결과는 반도체의 호황과 세트(ODM)의 부진으로 요약된다"며 "장기적으로는 세트와 반도체의 이 같은 미스매치가 지속되긴 어려울 것이다"고 예상했다. 이어 "새로운 신규 수요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지난주 D램 현물가격 급락과 해외 IB(투자은행)의 부정적 콜로 반도체 주가는 급락했지만 우려할 만큼 재조정 사이클의 강도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 연구원은 "애초에 슈퍼 사이클이 없었기 때문에 설령 재조정 사이클이 온다 해도 그렇게 길거나 깊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중요한 것은 코로나와 미중 갈등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사슬(GVC) 재편과정에 따른 재고의 이동이다. 재고조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3일 기준 삼성전자는 일주일 전과 비교해 8.7% 빠지며 연중 최저치인 7만4400원에 마감했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서초동 삼성전자 서초사옥. 박민아 기자

정이 온다고 해도 과거 평균적인 사이클에 비해 빠르게 마무리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또한 반도체 대형주들이 이미 연초부터 상당히 조정을 받아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외국인의 매도세는 주춤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들의 코스피지수 대비 상대 주가는 상승폭에 비해 충분한 조정을 거친 것으로 분석된다.

거래소에 따르면 13일 기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연초 대비 8.1%, 18.5% 하락했다. 같은 기간 코스피지수가 10.4% 오른 것과 상반된다. 유진투자증권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목표주가로 각각 10만원,

14만5000원을 제시한 상태다. 이 연구원은 "내년 상반기 D램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른 변수가 남아 있지만 지난주 주가 급락이 일단 단기적으로는 주가 저점을 만들어준 것으로 판단된다"며 "장기적인 투자자라면 충분히 진입 가능한 주가 수준으로 본다"고 말했다.

대신증권 "반도체체, 저평가·과매도 영역에 위치"

한편 대신증권은 반도체 업종의 주가, 가치가 극심한 저평가·과매도 영역에 위치했다고 의견을 내비쳤다. 대신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목표주가로 각각 9만

5000원, 14만원을 제시한 상태다. 대신증권에 따르면 반도체 업종의 올해, 내년 영업이익 전망은 각각 66조3000억원, 80조4000억원이다. 컨센서스 최저치를 반영할 경우 이는 각각 62조5000억원, 61조2000억원으로 레벨 다운된다. 주가 급락은 실적 측면에서 최악의 상황을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또한 반도체 업종의 12개월 선행 PER(주가순이익비율)과 9.12배, PBR(주가순자산비율)은 1.38배로 레벨 다운됐다. 팬데믹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자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되고 반도체 하락사이클 정점 구간에서나 볼 수 있었던 밸류에이션(실적 대비 주가) 수준이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주가는 미래의 업황과 실적 불안을 선반영하며 레벨 다운됐다. 그 결과 과매도 구간에 진입했고 가격,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매력적인 구간에 위치해 있다"며 "지난주 반도체 사이클에 대한 논란이 컸는데 비관적인 전망과 우려가 주가에 적극적으로 반영된 반면 여전히 낙관적이라는 의견은 분했다"고 말했다.

이어 "걱정했던 것보다 나쁘지 않다는 안도감으로도 반도체 주가는 반등시도에 나설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후 반도체 업황에 대한 회복 기대, 턴어라운드 기대가 유입되면서 주가는 다시금 상승추세를 만들어갈 전망이다"고 덧붙였다.

윤승준 기자



- ▶ 비에이치아이[083650]= 미쓰비시와 675억원 규모 LNG 복합화력 발전설비 공급계약 체결
- ▶ 삼호개발[010960]= 308억원 규모 고속국도 제29호선 세종포천(안성~용인)간 건설공사 중 터널공사 수주
- ▶ 신성이엔지[011930]=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와 99억원 규모 R&D 센터 증축공사 클린룸 일괄 EPC 수주
- ▶ 보령제약[003850]= 중국 시노팜과 1002억원 규모 겔포스(포스겔) 중국 독점판매계약 체결
- ▶ 한미반도체[042700]= 태국 유택사에 35억원 규모 반도체 제조장비 수주
- ▶ LG디스플레이[034220]= 중소형 OLED시장 겨냥... 3조3000억 규모 중소형 OLED 시설 투자
- ▶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 한화디펜스와 5082억원 규모 자주도하장비 기술협력생산 등 28항목 판매·공급 계약 체결
- ▶ 재영솔루션[049630]= 자금 유동성 강화 및 신규 OIS 설계투자 위해 50억원 단기차입 결정

"렉키로나 유럽 승인판 셀트리온, 실적 기대"

키움증권 보고서

셀트리온(068270)의 하반기 실적을 기대해 분할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바이오 시밀러 분야 퍼스트 무버로 차별화된 시밀러-베터 제품군을 확보하고 있는데다 최근 렉키로나, ADC, mRNA 등 신약분야로 확대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받기 때문이다.

17일 키움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셀트리온의 실적 추정치 하향으로 인해 목표주가가 36만원에서 35만원으로 낮춘다"면서 "투자여건은 매수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2분기 실적은 부진했지만 상반기 렉키로나를 생산해 재고 비축을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유럽에서 승인되면 공급물량확대가 기대된다는 분석이다. 허헤민 키움증권 연구원은 "9, 10월 유럽에서 렉키로나가 승인되면 유럽내 국가에서 레퍼런스 승인으로 먼저 받는 국가들이 나타날 수 있으며 관련 국가의 비축물량계약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기범 기자

내달부터 非청산 장외파생 개시증거금 교환 시행

거래잔액 70조 이상 은행 25곳, 증권 21곳, 보험 11곳 등 72社 적용

내달부터 1년간 개시 증거금 교환제도가 시행돼 72곳의 금융회사는 개시증거금을 의무적으로 교환해야 한다.

17일 금융감독원(김갑원)에 따르면 개시 증거금 교환제도가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 잔액이 70조원 이상인 72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9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적용 대상 72개 금융사 중 금융그룹 소속은 55개사, 금융그룹 소속이 아닌 회사는 17개사다. 업종별로 은행 25곳, 증권 21곳,

기타 15곳, 보험 11곳이다.

한편 내년 9월부터 1년간 개시 증거금 교환제도 적용대상 예정인 금융회사는 총 116개사다. 금융그룹 소속 금융회사는 96개사, 금융그룹 소속이 아닌 경우는 20개사다. 이는 올해 3~5월 장외파생상품거래 잔액으로 토대로 추정했다.

개시 증거금은 거래상대방의 부도 등 계약 불이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대비해 교환하는 것으로 차액교환 방식으로

운영 중인 변동 증거금과 달리 총액으로 교환해야 한다. 보관기관에 예치 후 담보 재사용은 불가능하다.

아울러 내달부터 1년간 변동 증거금 교환제도 적용대상인 금융회사는 총 145개사로 나타났다. 금융그룹 소속 금융회사는 115개사, 금융그룹 소속이 아닌 경우는 30개사다.

변동 증거금은 파생상품의 시가평가금액 변동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비하기 위해 교환하는 것이다. 거래상대방에 대해 일관된 방법으로 장외파생상품의 포트폴리오와 관련된 현재 시점의 익스포저를 반영하도록 산출해야 한다. 주로 유



동성이 풍부한 국공채와 현금이 사용된다. 금감원은 장외파생상품거래의 중앙청산소 청산을 유도하고 시스템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 가이드라인'을 2017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비청산은 중앙청산소

(CCP)인 한국거래소를 거치지 않은 장외 파생상품 거래를 말한다.

매년 3-4월말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명목잔액의 평균이 기준금액 이상인 금융사는 당해 연도 9월부터 1년간 증거금 교환대상에 해당한다. 해당 금융회사가 금융그룹에 속한 경우 금융그룹 내 대상 금융회사의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잔액을 모두 합산해 판단한다.

대상상품은 중앙청산소에서 청산되지 않는 모든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에 적용된다. 선물로 결제되는 외환(FX)선도스왑, 통화스왑(CRS), 상품선도 등은 적용에서 제외된다.

기준금액은 변동 증거금의 경우 2017년 9월부터 3조원 이상, 개시 증거금의 경우 내달부터 70조원 이상이며 내년 9월부터는 10조원 이상인 금융회사다. 윤승준 기자

SAMJIN 삼진제약

백신 접종 걱정되시죠? 아세트아미노펜 해열제를 미리 준비하세요!



비타민 B,C 함유 효과 빠른 해열 진통제

게보린[®]쿨다운



광고심의필 : 2021-1584-004400

상품 및 구입문의 : 080-082-1234 (수신자 부담)

[성분 및 함량] 아세트아미노펜 400mg + 벤포티아민 8mg + 리보플라빈 4mg + 아스코르브산 100mg [효능 및 효과] 1. 두통, 치통, 발치 후 통증(통증), 인후통, 귀의 통증, 관절통, 신경통, 요통, 근육통, 견통(어깨결림), 타박상, 골절통, 염좌통(뱀통증), 월경통(생리통), 외상통의 진통 2. 오한, 발열시의 해열 [용법 및 용량] 만 15세 이상 성인 : 1일 3회, 1회 1정 공복(빈 속)을 피하여 복용한다. 복용 간격은 4시간 이상으로 한다. "인터넷 의약품 판매행위는 불법입니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첨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제품문의전화 : 080-082-1234 (수신자 부담) www.samjinpharm.co.kr